

토론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조건변인 분석*

전은주**

〈 차례 〉

1. 머리말
2. 국어과 토론 교수-학습의 문제점
 - 2.1. 토론 교수-학습에 대한 개념 부재
 - 2.2. 토론 교육 내용의 불충분함
3. 토론 교수-학습의 조건 변인 분석
 - 3.1. 토론 교수-학습의 목표
 - 3.2.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 특성
 - 3.3. 토론 학습자의 특성
 - 3.4. 교실 토론 교수-학습의 제약 조건
4.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토론 교수-학습의 조건변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토론 교수-학습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debate)은 어떠한 공동 문제에 대하여 긍정측과 부정측이 각기

* 본 연구는 2001년도 부산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신임교수 연구 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자기편 주장을 받아들여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 방법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현상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의 방법을 기를 수 있다. 이 같이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토론이 가지는 의의와 교육적 가치로 인하여 학교 교육에서 토론은 중요히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학교 교육의 교과 구분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토론 능력을 길러 줄 일차적 책임은 도구 교과의 특성을 가지는 국어과에 있다. 국어과의 여러 영역 중 토론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은 말하기·듣기 영역이다. 학생들은 국어과 말하기·듣기 영역을 학습하면서 토론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를 국어과의 타 영역, 타 교과 학습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재찬 외(1998), 윤희원(1999), 줄고(2002)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국어과 교육에서 토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재찬 외(1998)에서는 기존의 토론 교육이 특정 단원에서 학생들의 생활, 경험, 관심, 흥미와는 거리가 먼 추상적인 주제를 주고 '토론해 보자'고 지시만 해 주었을 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토론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전략, 원리 등을 제공해 주지 않아 실제 학생들의 토론 능력 신장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희원(1999)은 토론 교육이 어려운 이유를 토론 과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의 부족, 토론 절차에 대한 지식 및 실천력의 부족, 토론 참가자의 언어 사용 능력 부족, 우리 토론 문화의 특징 등으로 보고 있으며, 줄고(2002)에서도 현재의 토론 교육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현행 국어과의 토론 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교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조건변인(conditions)에는 교과 내용의 특성, 목표, 학습자 특성, 제약 조건 등이 있다(Reigeluth & Merrill, 1979). 이러한 조건변인들은 교수-

학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 없이는 어떠한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재 개발, 교수-학습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보자면, 교사가 그 교과의 내용이 어떠한 지식을 다루며 그 교과의 목표는 무엇이며, 학습자들의 태도, 지속력, 학습동기 등과 교수-학습에 배정된 시간, 기자재, 인원, 자원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만이 교수-학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 특성과 목표, 학습자 특성, 제약점 등 교수-학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시 토론 교수-학습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어 교사들이 토론 단원 지도를 위하여 교수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과 토론 교수-학습의 문제점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의 장면은 교사, 학습자, 교과서, 교실 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가 교수-학습에 있어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도적으로 학습자의 내적 조건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한다. 이때 교사와 학습자를 매개하는 것이 교과서이므로 교과서의 내용 역시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국어과에서 토론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토론 교수-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별로 파악해 보아야 문제 현상에 대한 다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국어과의 토론

교육이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토론 교수-학습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교과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학습자가 토론을 할 만한 언어 사용 능력이 안 되어 토론 교수-학습이 안 되는 경우는 토론 교수-학습을 위한 내적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교육과정을 짜고 교과서 단원을 설계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토론 교수-학습의 문제점들은 지금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교수-학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점이 토론 교수-학습 방법의 타당성이 아니라 토론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조건변인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교수-학습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이 토론 교수-학습을 위한 조건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였음을 밝히겠다.

2.1. 토론 교육에 대한 개념 부재

교육 목표는 교육의 과정 속에 반영되어 학생 속에 구현될 때 그 가치가 있다. 도구 교과인 국어과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토론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자들이 실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상황이다. 이때 토론은 교수-학습의 내용이 되고, 학습의 목표가 '토론을 할 수 있다'이므로 토론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개념적 지식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토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어떠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소기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이때 토론은 그 교수-학습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이므로 토론을 어떻게 지도하여야 하는가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해당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토론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교수-학습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전자를 '토론을 교육한다는 의미'로 '토론 교육'으로, 후자를 '어

떠한 교육을 위하여 토론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교육 토론'이라 부르겠다. 국어과 말하기·듣기 영역에서 '토론 교육'이 이루어진 뒤 학습자들은 토론을 국어과의 타영역이나 타교과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뒤, 이를 이용한 '교육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의 순서로 합당하다.

그러나, 아래 <표1>, <표2>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토론' 관련 학습을 살펴보면, 토론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토론 교육'에 대한 것은 없다.¹⁾ <표1>, <표2>의 '내용'은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이들은 각각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용'과 함께 제시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는 '내용'이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기본」활동과, 학습 목표를 달성한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심화」활동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각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교수·학습의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에 나타난 '토론'은 모두 교육 방법으로서의 토론인 '교육 토론'이므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듣기 영역의 교육 내용에는 학습자의 토론 능력 신장을 학습 목표로 하는 '토론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 영역에 나타난 '토론' 학습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7학년 듣기영역	(4)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듣는다.	(기본) 토의나 토론을 듣고, 참여자들의 말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평가한다.
8학년 듣기영역	(5) 상대의 비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심화) 비람직한 토의나 토론 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토의한다.

1) 8학년 말하기 영역 (2)의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는 교육의 목표가 '내용을 생성해 말할 수 있다'이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 언급한 '교육 토론'으로 보아야 한다.

<표2>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말하기 영역에 나타난 '토론' 학습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6학년 말하기 영역	(3)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심화] 토론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다.
	(6) 여러 가지 말하기 규칙을 지키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회의, 토의,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그 상황에서 규정된 말하기 규칙을 지킨다.
8학년 말하기 영역	(2)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	[기본]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 결과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심화] 효과적인 토론 방법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다.
	(5)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의나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심화]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토의나 토론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예를 찾아보고, 그 문제점과 피해를 말한다.
9학년 말하기 영역	(2) 화제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기본]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적 쟁점 중에서 함께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토론한다. [심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서 함께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토론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학습자가 토론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의 전제는 학습자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표1>, <표2>에 나타나듯이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하여 '어떤 내용을 생성하고, 선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 방법으로서의 토론이 가지는 높은 가치를 생각해 보더라도 학습자들에게 '토론 교육'이 '교육 토론' 이전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교육 관련 연구자와 국어과 교사가 '토론 교육'의 개념을 인식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국어과 말하기·듣기 교수·학습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토론 교수·학습

의 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토론 교육 내용의 불충분함

공식적 문서로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실행될 때 비로소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토론' 관련 학습이 '토론 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교육 토론'의 모습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가 토론 방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을 교수 학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교육 토론'의 학습 내용으로 기술된 항목도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룰 때는 토론의 방법에 대하여 교육한 다음 토론의 방법을 이용하는 학습 활동으로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어과 교과서에 토론을 교수 학습하고 있는 단원의 전체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국어과 교과서에서 토론 교수 학습은 「초등학교 4-2」, 「초등학교 5-2」, 「중학교 2-1」 등 3개 학년에 걸쳐 3단원이 나타난다.²⁾ 이들 단원명과 내용, 단원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토론 교수 학습'

영역 및 학년	단원명과 내용	단원 학습 목표
말하기/듣기/ 쓰기 4-2 첫째마당	생각의 열매를 모아 2. 함께 의논하기 (1)토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알맞은 이야기거리를 정하여 토론해 봅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며 듣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 국어과교육과정에서 '토론' 관련 학습이 6학년부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과는 달리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이를 4학년에서부터 다루고 있다. 이같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3에서 다루겠다.

말하기/듣기/ 쓰기 5-2 넷째마당	말과 실천 2. 곧은 생각 좋은 세상 (1)토론 내용을 듣고, 토론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토론 주제를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봅시다. (3)적절한 근거를 들어가며 토론을 하여 봅시다.	의견이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학교 생활국어 2-1. 2단원 (말하기/쓰기)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1) 토론한 내용으로 말하기 (2) 토론한 내용으로 글쓰기	·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다.

〈표3〉에 나타나듯이 이들 단원의 궁극적인 학습 목표는 ‘토론 능력’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토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원의 학습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함께 의논하기(4-2)’, ‘곧은 생각 좋은 세상(5-2)’ 단원은 토론이 교수-학습의 방법이 아니라 내용이고,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중 2-1)’ 단원 역시 총 7개의 학습 활동 중 6개가 토론 교수-학습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³⁾ 즉, 단원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다른 경우로 이 자체가 교과서 단원 구성으로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토론 교육’과 ‘교육 토론’에 대한 구분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 단원의 내용이 토론 방법을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토론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체계와 구성면에서 본다면 교과교육학으로서 국어교육학 연구에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단원 설계의 배경과 과정이 어찌 되었든 이들 단원의 내용이 ‘토론

3) 〈표6-1〉, 〈표6-2〉 참조.

교육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토론 교육의 측면에서 이들 세 단원의 학습 내용이 학습자에게 토론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대로 선정하여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표4>~<표6>은 이들 세 단원의 학습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7차 국어과 교과서의 단원이 학습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 내용 역시 학습 활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4-1> '4-2학기, 첫째매당 2, (1)'의 학습 내용

교과서 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1.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그림을 보고, 명선이네 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토론의 필요성
2. 친구들이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의견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봅시다.	토론의 필요성
3. '친구의 별명을 불러도 좋은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에는 그 이유나 근거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내어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는 말하기를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론의 정의
4. 토론을 할 때에는 사회자, 찬성 토론자, 반대 토론자가 있어야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사회자와 토론자의 역할 제시됨>	토론 참여자의 역할
5. 토론을 하여 보았거나 텔레비전에서 토론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면 말하여 봅시다. 그리고 토론을 하면 좋은 점을 생각하여 봅시다.	토론의 기능

<표4-1>에서 보듯이 '토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소단원 학습 목표 아래 구성된 5가지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토론의 필요성', '토론의 정의', '토론 참여자의 역할', '토론의 기능'을 익히게 되어 있다. 즉, 이들은 실제 토론 수행을 하기 앞서 토론에 필요한 개념적 지식에 대한 학습에 해당한다.

〈표4-2〉 '4-2학기, 첫째마당 2. (2)'의 학습 내용

교과서 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1.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거리를 생각나는 대로 말하여 봅시다.	논제 정하기
2. 1에서 말한 이야기거리가 토론하기에 알맞은지 살펴봅시다.	논제 정하기
3. 모둠별로 토론할 이야기거리를 정하여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거리에 대한 내 의견을 정리하여 봅시다.	논제에 대한 자신 의견 정리하기
4. 토론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한 이야기거리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토론 규칙 토론 수행
5.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모둠 이름, 이야기거리, 토론 내용을 적을 수 있게 표 제공)	토론 내용 정리 발표
6. 토론을 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말하여 봅시다.	느낀 점 발표

〈표4-2〉에 제시된 학습 활동들은 '논제 정하기, 의견 정리하기, 토론 규칙 알기, 토론 수행하기, 토론 후 내용 정리하기' 등의 학습이다. 이 부분은 학습자가 실제 토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논제가 되는가에 대하여 학습한 뒤 자율적으로 논제를 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논제를 정한 뒤 논제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3'과 같이 정리하라고 지시만 할 뿐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주장)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있지 않다. 결국, 초등학교 4-2학기에 학습자들이 '토론의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논제 정하기, 참여자의 역할, 토론 규칙'이다.

<표5-1> '5-2학기, 넷째마당 2.(1)'의 학습 내용

교과서 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1. 토론자의 태도를 생각하며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은 통제되어야 하는가를 들어 봅시다.	토론 참여자의 태도 토론 듣기
2.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은 통제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듣고, 친구들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봅시다.	토론 듣기 (주장-근거: 분석적 듣기)
3. 토론을 잘 한 사람과 잘 못 한 사람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하여 봅시다.	토론 평가
4. 토론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아 봅시다.	토론 시 주의할 점

위 <표5-1>은 5-2학기 토론 학습의 내용의 앞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 이 부분은 토론을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분석적 듣기, 토론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표5-2> '5-2학기, 넷째마당 2.(2)'의 학습 내용

교과서 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1. 토론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 토론 주제 정하기 → 내 주장 정하기 →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 마련하기 → 토론 규칙을 지키며 토론하기 → 정리하기	토론의 과정 이해
2. 토론 주제를 정할 때에 주의할 점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 적절한 토론 주제를 정하여 봅시다.	논제 정하기
3. 모둠을 정하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의논하여 토론 주제를 정하고, 내 주장도 적어 봅시다.	논제 정하기 자신의 주장 정하기

<p>4.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주고받아 봅시다.</p>	<p>근거 마련하기</p>
<p>5. 3에서 정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봅시다. 그리고 근거를 들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근거를 들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할 만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p>근거 마련하기</p>

〈표5-2〉는 5-2학기 토론 학습의 내용의 뒷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 〈표5-2〉의 내용 중 앞서 배운 것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학습자가 토론의 방법에 대하여 새로 배우게 되는 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이다. 그러나,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 나와 토론 학습의 계열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합당한가'를 살펴보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근거 마련하기'로 들어가고 있어서 토론의 교수-학습의 내용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단원을 설계했음을 알 수 있다.

〈표5-3〉 '5-2학기, 넷째마당 2.(3)'의 학습 내용

교과서 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p>1. 모둠별로 찬성편과 반대편을 적절하게 나누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여 봅시다.</p>	<p>역할 정하기</p>
<p>2. 모둠별로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봅시다. 〈우리 편의 주장, 우리 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근거를 들기 위하여 조사해 온 자료를 적을 표 제시〉</p>	<p>토론 수행 준비 (주장 정하기, 근거마련하기, 근거 자료)</p>
<p>3.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여 봅시다.</p>	<p>토론 수행</p>

4.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찬성편과 반대편의 주장, 근거를 적을 표 제시〉)	토론 내용 정리
5. 토론을 하면서 잘 한 점과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을 적어 봅시다. (〈잘 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적을 표 제시〉)	토론 수행 평가

위 <표 5-3>에 제시된 학습 활동은 적절한 근거를 들어가며 실제 토론을 수행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표 5-2>에서 배운 '근거 마련하기'를 적용하여 실제 토론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정리 한 뒤, 수행에 대하여 반성하게 하는 학습 내용이다. <표 5-3>의 4의 경우, 토론한 내용을 긍정측과 부정측의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정리하게 하고 각각의 주장과 근거가 합당한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한 뒤 잘못 된 주장과 근거를 찾아내게 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는 토론이 단순히 주어진 의견이나 주장과 근거를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 근거 등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6-1> '중학교 2-1, 2 (1)'의 학습 내용

교과서 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1. 다음은 민식이와 영준이가 '휴대 전화 사용 문제'에 대해서 교내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문제 중에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자.	논제 정하기
2. 무인 카메라 설치에 대해 각자 입장을 정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말해 보자. 1)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근거를 마련해 보자. 2)위에서 정리한 생각을 바탕으로 토론해 보자. 3)토론 결과를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말해 보자.	토론 수행 -의견정하기 -근거마련하기 -토론내용정리

<p>3. 다영이는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신문에 실었다. 이 글을 읽고, 주제를 정하여 토론해 보자.</p> <p>1)모듬별로 토론할 주제를 정해 보자.</p> <p>2)모듬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해 보자.</p> <p>3)토론을 통해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말해 보자.</p> <p>4)토론한 내용을 아래 형식에 맞게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p> <p>〈토론 주제, 토론 참가자, 진행 시간, 찬반 의견, 종합 의견 적게 함〉</p>	<p>토론 수행</p> <p>-논제 정하기</p> <p>-의견 정하기</p> <p>-토론내용정리</p>
-------------------------------------------------------------------------------------------------------------------------------------------------------------------------------------------------------------------------------------------------------------------------------------------------	-----------------------------------------------------------

<표 6-2> '중학교 2-1, 2 (2)'의 학습 내용

교과서 학습 활동	교수 학습 내용
<p>1.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토론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토론과 관련된 경험을 말해 보자.</p> <p>1)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토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p> <p>2) 토론을 해 본 경험에 대해서 말해 보자.</p> <p>3) 토론을 하고 난 후에 느꼈던 점을 말해 보자.</p>	<p>토론 수행</p> <p>경험 말하기</p>
<p>2. 다음은 '학생들의 연예계 진출'이라는 주제로 토론한 내용이다.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p> <p>1) 앞에서 이루어진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p> <p>〈사회자의 발언 내용, 긍정적인 의견 및 근거, 부정적인 의견 및 근거〉</p> <p>2)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p>	<p>토론 자료를 통해 자신의 생각 정리</p>
<p>3. 아래 그림을 보고, '남녀 차별'을 주제로 토론하려고 한다. 토론 전의 생각이 토론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자.</p> <p>1) '남녀 차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p> <p>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 보자.</p> <p>〈통계 자료, 실제 경험, 인터뷰 자료〉</p> <p>3) 모듬별로 토론해 보자.</p> <p>4) 토론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이 바뀐 내용을 정리해 보자.</p>	<p>토론 수행</p> <p>-의견 정리</p> <p>-근거 마련</p> <p>-토론 수행</p> <p>-수행 후에 생각 정리</p>
<p>4. 활동3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녀 차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p>	<p>토론 후 글쓰기</p>

〈표6-1〉, 〈표6-2〉는 8학년에서 말하기·쓰기 영역에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을 사용하게 하는 단원의 학습 내용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토론의 방법을 사용하는 수준 이외에 새롭게 토론의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내용은 없다. 결국, 7차 국어과 교과서가 중학교 3-1학기까지 출판된 현재의 상황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토론의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단원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된다. 앞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서 배운 토론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전체 토론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고 이 자체도 학습자가 초등학생이어서 간단한 것만 다루고 있는 실정인데 중학교에 가서 토론 교육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습 방법으로서 토론을 사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실제 토론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학습자의 토론 능력 신장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현 국어과 교육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토론 교수-학습의 조건 변인 분석

토론 교수-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익혀야 할 것은 구체적인 토론의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토론 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토론 교수-학습에 대한 조건 변인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음에서 출발하였다. 이 장에서는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짓는 토론 교수-학습의 목표, 내용 특성, 학습자의 특성, 교수-학습의 제약 조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토론 교수-학습의 목표

국어과 교수-학습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고, 국어과 말하기·듣기 영역의 교수-학습 목표는 학습자의 화법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다. 국어과 말하기·듣기 영역의 교수-학습

내용은 학습자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담화 유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어과 말하기·듣기 영역의 교수·학습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담화 유형의 하나가 바로 토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론은 한 논제에 대하여 각기 입장이 다른 두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상대를 설득해 가는 경쟁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토론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토론에서 참여자가 상대방과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효과적인 표현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토론이 교육의 내용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은 교육 일반이 지향하는 사고력을 직접적으로 길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 교수·학습의 목표는 학습자의 토론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토론 능력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박하여,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론 능력은 한두 번의 토론 수행으로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토론을 여러 번 해 본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정확한 토론의 방법에 따라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반복적인 수행 경험을 쌓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어과 말하기·듣기 영역에서 토론을 하는 방법을 정확히 교수·학습한 뒤 이를 국어과의 타 영역 학습과 타 교과 학습에서 적용하고 반복함으로써 토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토론 교수·학습의 목표를 토론 능력의 신장으로 두지 않고 토론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둬으로써 토론 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토론 교육을 국어과의 어느 영역에서 지도하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토론의 방법은 제대로 충실히 가르쳐 주지 않은 채 토론을 수행하게 하는 현재의 토론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토론 교육의 개념 하에서 토론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이 시급하다.

3.2.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 특성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은 학습자가 토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술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지식들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사용할 수 있게 교수-학습을 제공받아야 한다. 토론은 실제 참여자들이 토론을 수행하기 전에 토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준비를 거쳐야 하고 토론 수행 후에는 수행한 토론에 대하여 긍정측과 부정측 중 어느 편이 잘 하였는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토론의 단계에 따라 참여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학습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수-학습 내용 항목을 시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토론 단계별 필요 기능과 교수-학습 내용 항목 분석

단계	진행 과정	필요 기능	교수-학습 내용 항목
토론 전 준비 단계	논제 정하기 주장 정하기 주장 논거 마련하기 반박 논거 마련하기	논제 분석 논증 논거 검증 논거 자료 수집 추론 토론 개요 작성	· 토론의 개념 · 토론의 특성 · 토론의 과정 · 논제의 특성 · 논제 분석의 방법 · 논증의 방법 · 논거 검증의 방법 · 추론의 방법 · 토론 개요 작성의 방법
토론 단계	긍정측 입론 부정측 입론 부정측 반대 신문 긍정측 반대 신문 부정측 변론 긍정측 변론	토론의 규칙 토론 참여자의 역할 입론 구축하기 변론 구축하기 논박하기 오류 분석하기	· 토론 유형별 규칙 · 사회자, 긍정측, 부정측 참여자의 역할 · 토론 수행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방법 · 입론의 조건 · 입론 구축하기 방법 · 변론 구축하기 방법 · 논박하기 방법 · 사과의 오류 분석 방법 · 분석적 듣기의 방법 · 비판적 듣기의 방법
토론 후 판정 단계	판정하기	평가하기	· 토론 평가 항목과 기준 · 토론 수행 정취 후 판정 방법

〈표7〉의 교수-학습 내용 항목으로 제시된 사항은 앞서 2.2에서 현재 국어과 교과서의 토론 교수-학습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에 비하여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도 중학교 이상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에서 제공받은 토론 지식 일부로 토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학습자가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면서 서로의 주장만 해 나가게 할 따름이다. 〈표7〉에서 분석한 토론 교수-학습 내용 항목은 교육과정 내용 구성과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3. 토론 학습자의 특성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토론'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에 나타난다. 신현재(1987), 이관규(1997), 줄고(1999, 2001) 등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교육 내용이 실제 학교 교육에서 실행되지 않거나,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과 달리 학교 교육에서 실행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토론'과 관련된 내용 역시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에 상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의 계열을 떠나 현재 학교 국어과 교육에서 '토론 교육'을 처음 다루게 되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이므로 이 때를 국어과에서 최초의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만6세가 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는 만9세 이상~ 만10세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토론'을 초등학교 4학년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연령의 학습자가 '토론'이라는 담화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인지적, 심리적으로 발달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토론은 경쟁적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토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 전후의 관계가 일치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상대편에 의해 제시된 논증, 추론,

증거 등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피아제(1954, 1963, 1970)는 인간의 인지 발달 4단계를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었다. 이 중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stage)는 아동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사고가 전환되고, 단순한 지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론을 토대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능력을 발전시키게 되는 단계로 7-11세 정도의 아동들에게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 사고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 아동들은 추상적인 것들이나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은 잘 처리하지 못한다. 또,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한 번에 많은 요인의 협응을 포함하는 가설적, 추상적 문제들에 대하여 추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Woolfolk (1995: 67)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만9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학습자로, 주로 추상적인 논제에 대하여 다루며, 추론이 필요한 토론 학습이 인지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토론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토론 교육은 11세 이후의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 stage)에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은 가설을 세워 사고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도 추론 가능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삼단 논법에 대하여 이해가 이루어지고, 문제 상황에서 변인을 확인하여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제, 제어할 수 있다. 통상 10세 전후가 되면 사회적 규칙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율 의식이 나타나므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토의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연령(만11세)에서 토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과 교육과정상에 처음 '토론'이 나타나는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 학습자의 인지 발달이

고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의 계열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진의 임의에 의하여 학습 내용이 선정되어 구성되었을 때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3.4. 교실 토론 교수-학습의 제약 조건

일반적으로 토론이 일어나는 상황은 여러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토의를 하다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찬반 양쪽으로 나누어져 이에 대한 공동의 의사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양측이 각기 자기 편 의견의 타당성과 장점, 반대 편 의견의 불합리성, 단점 등에 관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토론 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긍정측과 반대측, 사회자, 청중 등이 토론의 공간과 과정, 결과 등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이와 다르다. 토론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토론 교수-학습에 있고 학습자들도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하나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 참가자로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실 토론 교수-학습은 중학생을 기준으로 35명의 학습자가 45분 수업 동안 교사 1명과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의 제약이 따른다.

첫째, 학습자가 어떤 논제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교수-학습에서 동일한 차시 학습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취를 하게 된다. 그러나, 토론 교수-학습은 음성 언어 교수-학습의 특성상 동일한 차시 학습 목표를 가지더라도 학습자가 동일한 학습 경험을 수행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35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긍정측 또는 부정측 참여자, 혹은 사회자로서 동시에 발화를 한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결국 교실 전체 차원에서의 토론 수행에서는 3~5명의 학습자가 선발되어 대표로 수행을 하게 되고 다른 학습자는 이들의 수행을 관

찰하는 것으로 간접 수행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둠별로 토론 수행을 하게 하더라도 모둠별로 긍정측 참여자, 부정측 참여자, 사회자, 판정관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야 하므로 역시 수행에 대한 동일 경험을 보장할 수는 없다.

둘째, 토론의 전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교수-학습 시간상 제약이 있다. 토론은 한 차시의 교수-학습에서 즉흥적으로 제안되어 수행되는 학습 과제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논제에 대하여 토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론 전의 준비 단계, 실제 토론 단계, 토론 후의 판정 단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번의 토론 수행을 실제 토론 단계와 판정 단계만으로 보더라도 45분 동안에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2차시 연속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여야만 교사가 수업의 도입 단계를 거쳐 토론을 수행하게 하고 수행한 토론에 대하여 정리를 할 수 있다. 또, 토론의 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길어서 한정된 차시로 단원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수업 진행 방법 역시 조정하여야 한다. 토론 전 준비 단계를 위한 교수-학습을 한 뒤 학습자가 토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 1~2주의 시간을 준 뒤 다시 토론 단계의 수업을 진행하는 식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셋째, 교사가 모둠별 토론 수행의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없다. 토론 교수-학습에서 준비 단계의 학습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실제 토론 수행은 모둠별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수행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수행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한 모둠의 토론 수행밖에 관찰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교실을 돌아가며 여러 모둠의 수행을 관찰한다는 것은 한 모둠의 수행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없게 되므로 오히려 수박 겉핥기식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모든 모둠이 교사의 직접적 관찰과 피드백을 받으려면 현재의 학습 인원을 기준으로 14차시가 소요된다.⁴⁾ 그러나, 국어과에 토론 교수-학습만

4) 35명을 5명씩 7모둠으로 구성한 뒤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토론을 수행하게 하려면, 한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상에서 지적한 교실 토론 교수-학습의 제약은 정해진 수업 시수와 다인수의 학급 상황,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교수-학습이 가지는 생태적인 상황이 음성 언어로 진행되는 토론 교수-학습과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제약에서 오는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탄력적인 수업 운용과 녹화기록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메타 토론 교수-학습 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4. 맺음말

이상에서 국어과 토론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론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 특성, 토론 학습자의 특성, 교실 토론 교수-학습의 제약 조건 등 토론 교수-학습의 조건 변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토론 교육'을 충실히 한 뒤 '교육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토론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토론 교육'과 '교육 토론'을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어과에서 토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을 토론 교육에 대한 개념의 부재와 토론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에서 기인되었다. 결국 이러한 원인은 국어과에서 토론 교수-학습을 설계하기 전에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짓는 조건 변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으므로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학습자에게 토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 교육의 개념 하에 토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자의 지적 특성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조직된 지적 특성들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두고 학습자가 수행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토론 교수-학습 단원을 설계하고, 교사는 교실 토론 교수-학습의 제약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토론 교수-학습을 위한 조건변인이 국어과 교육 과정을 조직하고, 교과서의 토론 단원을 구성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토론 교수-학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기를 바란다.*

* 본 논문은 2004. 6. 23. 투고되었으며, 2004.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7.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종서, 이영덕, 황정규, 이홍우 공저(1995).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김중화·김봉진(1999).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형설출판사.
- 대학교직과교재편찬위원회 편(1993). 『교육과정 및 평가』, 서울:교육출판사.
- 박도순·변영계(198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문음사.
- 신헌재(1987). "초등국어과 말하기 지도 목표 및 내용의 구체화 양상 분석", 『사대논문집』, 한양대학교 사범대학교.
- 윤희원(1999). "학교토론 교육의 난점", 『학교토론문화의 효과적인 형성방안』, 한국교원대 중합교원연수원.
- 이관규(1997).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 이대규(2001). 『국어교육론』, 교육과학사.
- 이영덕(1987). 『교육의 과정』, 배영사.
- 이주행 외(2003). 『고등학교 화법』, 금성출판사.
- 전은주(2000). "상호 관계적 말하기 듣기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토론 지도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 『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전은주(2002). "화법 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정재찬 외(1998). "국어과 토의·토론 학습의 수업 모형 개발연구(1)", 『선청어문』 2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Gagné, R. M. & Briggs, L. J.(1979), Principle of Instructional Design/김경식·권요한 공역(1989), 『수업설계의 원리』, 교육과학사.
- Reigeluth & Merrill(1979). Classes of Instructional Variables, Educational Technology, 18(3).
- Woolfolk, A. E.(1995), Educational Psychology/김아영 외 공역(1997), 『교육심리학』, 학문사.

〈초록〉

토론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조건변인 분석

전은주

본고는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토론 교수-학습의 조건변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토론 교수-학습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은 어떠한 공동 문제에 대하여 긍정측과 부정측이 자기 자기편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 방법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현상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의 방법을 기를 수 있다. 이 같이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토론이 가지는 의의와 교육적 가치로 인하여 학교 교육에서 토론은 중요히 다루어지고 있다.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토론 교육'을 충실히 한 뒤 '교육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토론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토론 교육'과 '교육 토론'을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어과에서 토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을 토론 교육에 대한 개념의 부재와 토론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에서 기인되었다. 결국 이러한 원인은 국어과에서 토론 교수-학습을 설계하기 전에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짓는 조건 변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으므로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토론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 특성, 토론 학습자의 특성, 교실 토론 교수-학습의 제약 조건 등이 국어과 교육 과정을 조직하고, 교과서의 토론 단원을 구성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토론 교수-학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토론 교수-학습, 토론 교육, 교육 토론, 조건변인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Designing
Debate teaching and Learning

Jeon, Eun-joo

This study aims to provide specific considerations in designing debate teaching and learning by overviewing the issues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in the field of debate teaching and learning which is being given at school.

Debate is a competitive way of communication, by which the affirmative or the negative persuades each other into accepting his/her own assertion. Through the process of debate, the participants can get a precise understanding of social phenomena or issues and raise the ways of logical thinking and expression. Such instructional meanings and values of debate as a way of communication render the debate an indispensable part of school education.

Debate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must be designed in order that a faithful 'education on debate' must precede a proper 'education through debate'. However, actually, students are made to go into an 'education through debate' without being 'educated on debate' enough. Such a situation spoils both 'education on debate' and 'education through debate'.

The improper education on debate is attributed fundamentally to the lack of concepts on and the lack of material for the debate education. These problems also come from the insufficient consideration for the conditions which decide what and how they instruct and learn before designing the debate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n education.

The aims, content properties, characteristics of debate learners and restrictions in the debate teaching and learning at classroom provided in this article are expect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future during the organization of Korean education curricula and debate unit in the textbook.

and the implementation of debate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key words】 debate teaching and learning, education on debate, education through debate, conditions